

## ■ 프랑스,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증가

- 프랑스 환경연구소는 '1997년 프랑스 전국 도시 폐기물 현황' 자료를 발간함
  -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최근의 프랑스 도시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전국적으로 세부 조사한 최초의 자료라고 함
  - 인구 10,000명 이상의 4,5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함
- 최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립 처리 비중이 높음
  -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 - 1인당 평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 352 kg에서 1997년 392 kg으로 늘어났으며 관광수입 비중이 높은 도시의 1인당 평균 발생량은 평균치의 30%를 상회하는 496 kg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경향을 나타냄
  - 도시 폐기물 처리방법 비중은 매립, 소각의 순임
    - 폐기물의 48%가 전처리 없이 매립되며, 인구 500인 이하의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70%에 달함
    - 소각 처리비율은 40%를 웃돌며 그중 3/4은 에너지 회수를 병행하고 있음
- 우리 나라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0년대 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정책 등으로 감소추세이며, 소각 처리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음
  - 서울시를 예로 들면, 1997년 1인당 평균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45 kg, 처리방법은 매립(62%), 재활용(33%), 소각(5%)<sup>1)</sup>등으로 매립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재활용과 소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  - 가연성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음(약 59%<sup>2)</sup>)에도 소각처리율이 낮아 소각율을 고양해 에너지 회수를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임
  - 향후 처리방법의 변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회수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임

김 성 철(02-3669-4110, sckim@hri.co.kr)

1) www.metro.seoul.kr '서울통계연보' 참조

2) 환경부, 환경백서, 1999